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제넥신(09570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민충기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넥신(095700)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업화까지, bioPROTAC이 여는 차세대 표적 신약의 새 지평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홍성준, 최재현
설립일자	1999.06
상장일자	2009.09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hyFc 기반 항암 면역치료제, DNA 백신 신약연구개발
주요제품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2,43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111
발행주식수	45,540,494
52주 최고가(원)	7,490
52주 최저가(원)	2,140
외국인지분율	4.11
주요주주	(주)한독

■ 고유 플랫폼 기술로 구축한 바이오신약 개발 역량

제넥신(이하 동사)은 1999년 설립 이래 인체 유래 IgD · IgG4 Fc 단편을 융합하여 단백질 약물의 반감기와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hyFc® 플랫폼을 핵심 원천기술로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특례 상장 이후 25년 이상 축적한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형 빈혈치료제(GX-E4, EFESA®),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GX-H9), 항암면역치료제(GX-I7) 등 다수의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bioPROTAC 플랫폼 내재화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동사는 2024년 10월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소규모합병을 통해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인 bioPROTAC 플랫폼 EPDeg™을 내재화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 저분자 PROTAC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세포 내 단백질의 약 93%에 달하는 '공략 불가(undruggable)' 표적 단백질을 나노바디 기반 융합단백질을 통해 선택적으로 결합·분해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이다. 이를 기반으로 폐암 치료제 GX-BP1과 아토피피부염·암 치료제 GX-BP2 등 First-in-class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GX-BP1은 폐선암(LUAD), 폐편평상피세포암(LUSC), 소세포폐암(SCLC) 등 주요 폐암을 대상으로 표준치료제와 병용하여 치료 후 잔존하는 암줄기세포(Cancer Stem Cell)를 제거함으로써 종양 재발과 약물 내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글로벌 파트너십과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기반 사업 인프라

동사는 인도네시아의 KGBio, 중국의 TJ바이오·CSPC, 미국의 NeoImmuneTech 등 아시아·유럽·미주 전역의 글로벌 제약 파트너와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에 본사 및 R&D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의 사업화 전략과 후보물질 발굴에서 상업화까지 이르는 전주기 역량을 통해 기술이전 수익 및 로열티 수취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38.7	-75.63	-404.9	-1045.96	-391.4	-1011.05	-23.49	-17.47	24.20	-1,646	7,156	N/A	1.38
2024	29.3	-24.25	-372.5	-1270.00	-637.1	-2172.23	-22.82	-17.66	31.86	-1,499	5,754	N/A	0.93
2025	45.7	55.96	-361.7	-780.84	-272.2	-595.01	-10.71	-7.60	50.46	-598	5,426	N/A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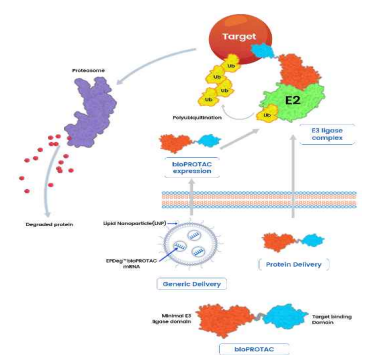
기업경쟁력

3대 독자 플랫폼 기술 보유	- hyFc® 융합 단백질 플랫폼: FcRn 재활용 기전 기반 반감기 극대화 원천 기술 (특허: 미국 US 7867491 B2, 한국 KR 10-0897938 B1 등 다수 다국가 등록) - bioPROTAC EPDeg™ 플랫폼: 나노바디-엔지니어링 E3 직접 융합, 27종 E3 단백질 활용 가능한 차세대 TPD 기술 - DNA 백신 플랫폼: 전기천공법 기반 항원특이적 T세포 면역반응 유도 기술, 자궁경부암 치료백신(GX-188E) 임상 2상 완료
후기 임상 및 상업화 파이프라인	- GX-E4(EFESA®):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품목허가 획득,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다국가 허가 진행 중 - GX-H9: 중국 파트너사 TJ바이오의 주도로 중국 임상3상 완료. 2026년 3분기 중국 CDE BLA 신청 예정 - GX-G6: 중국 파트너사 CSPC의 주도로 중국 임상 3상 완료, ex-China 기술이전 목표 - GX-BP1(SOX2 bioPROTAC): IND패키지 완료 및 전임상 단계 기술이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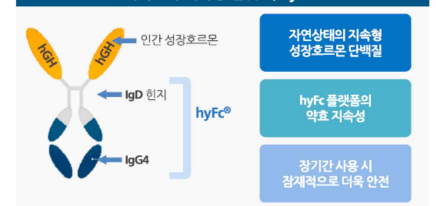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EPDeg™ bioPROTAC 플랫폼	- 나노바디와 엔지니어링 E3 리가아제를 링커 없이 직접 융합한 완전 단백질 기반 TPD 플랫폼으로, 기존 저분자 PROTAC으로는 접근 불가능하였던 undruggable 표적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며, 27종의 혁신 E3 단백질과 자체 나노바디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신규 후보물질 내재적 발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EFESA®(GX-E4, 지속형 빈혈치료제)	- hyFc® 플랫폼 기반의 3세대 지속형 적혈구생성자극제로, 한국·호주 등 7개국 391명 대상 임상 3상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미세라(Mircera®)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헤모글로빈 반응률 75.6% vs 69.3%)하였으며,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품목허가 획득 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시장 내 상업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GX-H9 (지속형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 hyFc® 플랫폼 기반의 지속형 성장호르몬 제제로, 한국 및 유럽에서 소아 및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을 완료하였으며, 중국 라이선싱 파트너사인 TJ bio가 중국에서 1일 제형 성장호르몬제인 노디트로핀 대비 비열등성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GX-H9 1주 1회 주사, 성장률 10.76 cm vs 노디트로핀 1일 1회 주사, 성장률 10.28cm) 2026년 3분기에 중국 허가 당국에 BLA 신청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된다.

<bioPROTAC 작동 원리>



제넥신의 지속형 플랫폼, hyFc™



시장경쟁력

글로벌 TPD 시장 선점 기회	- Grand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TPD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억 4,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0.8% 성장하여 2030년 약 16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사의 bioPROTAC EPDeg™ 플랫폼은 기존 저분자 PROTAC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별화 기술로 글로벌 시장 내 First-in-class 포지셔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신장 빈혈 시장 상업화	- EFESA®(GX-E4)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다국가 상업화를 확대 중이며, 인도네시아 KGBi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아시아 지역 빠른 시장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 KGBio(인도네시아), TJ바이오·CSPC(중국), NeolmuneTech(미국), Handok(한국), 등 아시아·미주 다수 파트너와 7개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케다(Takeda)와의 연구비 지원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Cornell-Emory-Univ. of Chicago 등 글로벌 KOL과의 MTA 기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GX-BP1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I. 기업 현황

3대 플랫폼 기반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동사는 hyFc® 융합 단백질, bioPROTAC EPDeg™, DNA 백신이라는 3대 독자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으로,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의 아시아 상업화와 차세대 bioPROTAC 신약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설립 이래 2009년 코스닥 특례 상장 후 25년 이상 신약 R&D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마곡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를 거점으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기술이전, 상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화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9년 설립된 이래 독자적 원천기술인 hyFc® 융합 단백질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며, 2009년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을 통해 공개 바이오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이어왔다. 2015년 항암면역치료제 GX-I7의 아이맵 바이오파마 기술이전을 기점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본격화하였으며, 2023년 EFESA®(GX-E4)의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획득으로 최초 상용화를 실현하였다. 2024년 10월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소규모합병을 통해 bioPROTAC EPDeg™ 플랫폼을 내재화하고 2025년에는 홍성준·최재현 각자대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경영과 R&D를 분리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홍성준·최재현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홍성준 대표이사는 Vanderbilt Law School 법학 석사(LLM)와 연세대학교 MBA를 보유하고 있으며, ROKIT Healthcare 총괄사장, 한독 CFO, Nike Korea CFO, Philip Morris, 대우자동차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의 경영·재무 전문 이력을 토대로 동사의 사업 경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재현 R&D 총괄 대표이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박사 학위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석사를 보유하며, EPD Biotherapeutics 창업 CEO, Arvinas, Trillium Therapeutics, 삼성첨단기술연구원, Transition Therapeutics, LG화학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R&D 부문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bioPROTAC 플랫폼을 포함한 동사의 전략적 R&D 방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한독은 동사 지분 6,048,534주(13.28%)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독의 대표이사

제넥신(095700)

회장인 김영진이 ㈜한독의 최대출자자(지분 43.38%)로서 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동사와의 간접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기주식은 60,827주(0.13%)이며, 기타 주주가 나머지 지분 약 86.59%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분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 45,540,494주이며, 2024년 10월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소규모합병 과정에서 신주 4,029,911주가 발행된 바 있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자기주식 0.13%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율 13.41%로 산정

■ 사업 분야

동사는 hyFc® 지속형 단백질 신약, bioPROTAC 신약, DNA 백신, 연구용역 및 기술이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hyFc® 지속형 단백질 신약	GX-E4(EFESA®), GX-H9, GX-G6, GX-I7	hyFc® 플랫폼 기반 지속형 바이오메터 및 혁신 신약 개발·기술이전. 빈혈, 성장호르몬 결핍증, 당뇨/비만, 항암면역 등 다양한 만성질환 적응증
bioPROTAC 신약	GX-BP1(SOX2), GX-BP2(STAT3), GX-BP3(ATXN1)	EPDeg™ bioPROTAC 플랫폼 기반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 신약 개발. 폐암, 아토피피부염, 소뇌실조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중심 First-in-class 파이프라인
DNA 백신	GX-188E	전기천공법 기반 HPV 유래 치료 DNA 백신. 자궁경부전암·자궁경부암 대상 임상 완료, 현재 전략 검토 중
연구용역 및 기술이전	나노바디 발굴 서비스, 기술이전 로열티 수취	자체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활용 발굴 서비스 및 기술이전계약에 기반한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수취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hyFc® 지속형 단백질 신약 부문은 동사 고유의 hybrid Fc 융합 플랫폼을 적용하여 기존 단백질 치료제의 체내 반감기와 투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GX-E4(EFESA®)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다국가 상업화 및 한국 품목허가 재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GX-H9(지속형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은 한독·TJ바이오와의 공동개발 하에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26년 3분기 중 중국 CDE에 BLA

제넥신(095700)

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GX-G6(지속형 GLP-1, 당뇨·비만 치료제)은 중국 파트너사 CSPC의 주도로 진행된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한 상태로 ex-China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GX-I7(지속형 IL-7, 항암면역치료제)은 미국의 NeoImmuneTech와의 공동개발 하에 ARS, CAR-T 고형암 등 적응증 대상 Phase 1~2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 생체유래 물질 IgG4와 IgD 융합 구조

Natural structure

- Broad applicability
- High bioactivity
- No cytotoxicity
- Long-acting
- No mutation



자료: 동사 홈페이지

bioPROTAC 신약 부문은 2024년 10월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 합병을 통해 내재화한 EPDeg™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동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존 저분자 PROTAC으로 분해 불가능하였던 undruggable 단백질을 나노바디-엔지니어링 E3 리가아제 융합 단백질 형태로 선택적 분해하는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GX-BP1(SOX2 bioPROTAC)은 폐선암(LUAD), 폐편평상피세포암(LUSC), 소세포폐암(SCLC) 등 주요 폐암을 대상으로 각 암종의 표준치료제와 병용하여 치료 후 잔존하는 암줄기세포(Cancer Stem Cell)를 제거함으로써 종양 재발과 약물 내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병용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First-in-class 파이프라인으로, 전임상 시료 생산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다케다와의 연구비 지원 공동연구, Cornell·Emory·Univ. of Chicago 등 글로벌 KOL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GX-BP2(STAT3 bioPROTAC)는 아토피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듀피켄트(Dupixent®) 대비 우수한 in-vivo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4분기 전임상 개발 단계 진입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2026년 6월 bioPROTAC 플랫폼인 EPDeg™가 네이처(Nature) 특별 기획 기사에서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 신약개발 기술로 조명된 바 있으며, GX-BP1 연구성과는 AACR 2026 포스터 발표에 이어 2026년 9월 세계폐암학회(WCLC 2026)에서 구두 발표 주제로 선정되어 글로벌 R&D 커뮤니티에서의 기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진흥원-Amgen Science Academy Pitching Day 3위 수상, 진흥원-Takeda Korea Startup/Biopharma Acceleration Program 종양학 부문 대상 수상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bioPROTAC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사업 방향과 관련하여 동사는 GX-E4(EFESA®)의 국내 품목허가 재신청과 아시아 다국가 시장 출시, GX-H9의 중국 CDE BLA 심사 결과 수령을 통한 중국 시장 진입을 주요 마일스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bioPROTAC 부문에서는 GX-BP1의 2027년 IND 신청을 목표로 전임상 데이터 패키지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GX-BP2는 2026년 3분기 내 최적 LNP 제형 확보 및 4분기 내 전임상 개발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이러한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의 라이선스-아웃(L/O) 및 공동개발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된다.

II. 시장 동향

글로벌 TPD 시장, CAGR 20.8%로 급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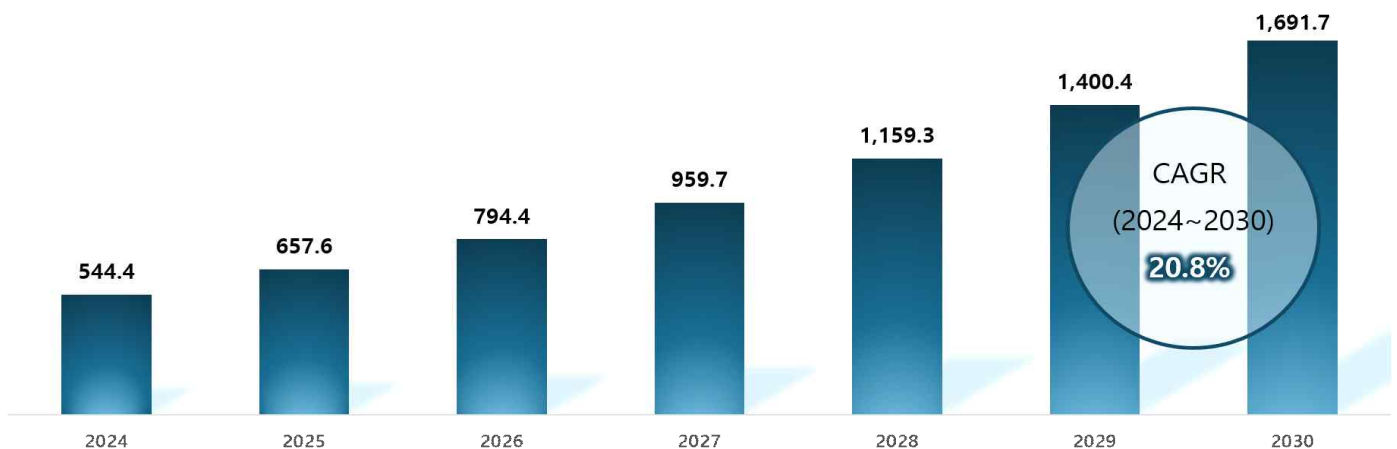
글로벌 표적단백질분해(TPD) 시장은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기존 저분자 PROTAC의 한계를 극복하는 bioPROTAC 등 차세대 TPD 기술의 등장은 암, 신경퇴행성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치료 영역에서 혁신 신약 개발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Grand View Research,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Market Report」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글로벌 표적단백질분해(TPD) 시장 규모는 2024년 5억 4,44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20.8%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16억 9,17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난치암 및 신경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기존 저분자 약물로 공략이 어려웠던 undruggable 표적을 분해할 수 있는 PROTAC, 바이오PROTAC 등 혁신 기술의 고도화, FDA·EMA의 규제 지원 환경 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글로벌 표적단백질분해(TPD)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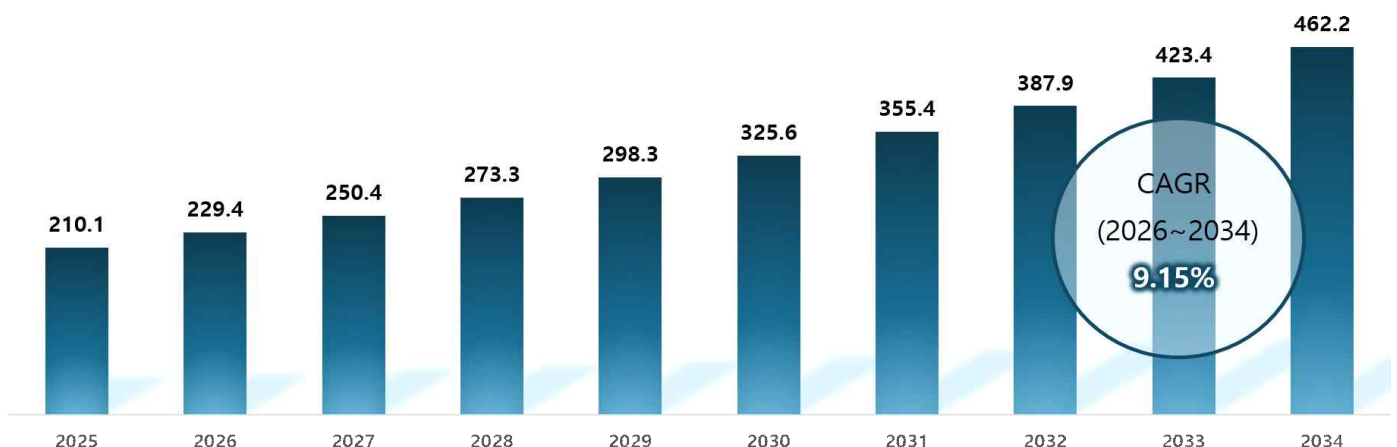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Market Report」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5. 글로벌 아토피피부염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Atopic Dermatitis Drugs Market」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제넥신(095700)

Fortune Business Insights 「Atopic Dermatitis Drugs Market」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글로벌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10.1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9.15%씩 성장하여 2034년에는 약 462.2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글로벌 아동·성인 유병률 증가(전 세계 아동의 약 20%, 성인의 약 2~8% 이환),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한계를 극복하는 생물학적 제제 및 JAK 억제제 도입 확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허가 약물 증가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글로벌 TPD 시장은 저분자 PROTAC, 분자 접착제(Molecular Glue), bioPROTAC 등 다양한 분해 기술 모달리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저분자 PROTAC 세그먼트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47.71%(2024년 기준)를 점유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bioPROTAC과 같은 생물학적 분자 기반 TPD 기술은 기존 저분자 PROTAC이 접근하지 못하는 세포 내 단백질의 93%를 표적으로 할 수 있어 차세대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중앙학 분야가 전체 TPD 시장의 56.72%를 차지하는 치료 개발 세그먼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신경퇴행성 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영역으로의 적응증 확장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보 노디스크의 Neomorph과 1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TPD 공동개발 계약, 다케다의 중국 Degron Therapeutics와의 12억 달러 분자 접착제 개발 계약 등 글로벌 빅파마들의 TPD 영역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기술이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AI·머신러닝 기반 후보물질 발굴 기술의 도입이 TPD 분야 신약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어, bioPROTAC 플랫폼을 보유한 동사에게 유리한 산업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국내 TPD 분야는 2026년 화이자의 PROTAC 계열 치료제 베파누(Veppanu®)의 FDA 최초 승인을 계기로 개발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분자 PROTAC, 분자 접착제, DAC(항체분해약물접합체) 등 다양한 모달리티 접근이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병행 추진 중이며, 동사의 bioPROTAC EPDeg™ 플랫폼처럼 기존 저분자 한계를 극복하는 생물학적 기반 TPD 기술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름테라퓨틱은 GSPT1 분해제를 항체에 결합한 DAC 플랫폼(TPD²®)으로 BMS, Vertex Pharmaceuticals와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TPD 분야 기술이전 선도 사례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유빅스테라퓨틱스는 자체 발굴 플랫폼 'Degraducer'를 기반으로 BTK 분해제 UBX-303-1의 한국·미국·폴란드 임상 1상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TPD 치료제 글로벌 임상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핀테라퓨틱스는 분자 접착제 기술 기반 CK1 α 분해제 PIN-5018의 임상 1상 첫 환자 투여를 개시하였으며, SK바이오팜은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통해 p300·PRMT5 표적 분자 접착제 기반 TPD를 차세대 신약 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오름테라퓨틱	• DAC 플랫폼(TPD ² ®) 기반으로 BMS-Vertex와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킨 국내 L/O 선도 사례
유빅스테라퓨틱스	자체 Degraducer 플랫폼 기반 BTK 분해제 UBX-303-1 국내·미국 임상 1상 진행 중
핀테라퓨틱스	• 대웅제약과의 분자 접착제 공동개발 및 CK1 α 분해제 PIN-5018 임상 1상 개시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3대 원천 플랫폼과 bioPROTAC 차세대 분해 기술의 시너지

동사는 hyFc® 융합 단백질, bioPROTAC EPDeg™, DNA 백신이라는 3대 독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EPDeg™ bioPROTAC은 나노바디와 엔지니어링 E3 리가아제를 직접 융합한 완전 단백질 기반 표적단백질분해 기술로, 기존 저분자 PROTAC 대비 타겟팅 범위·선택성·독성 프로파일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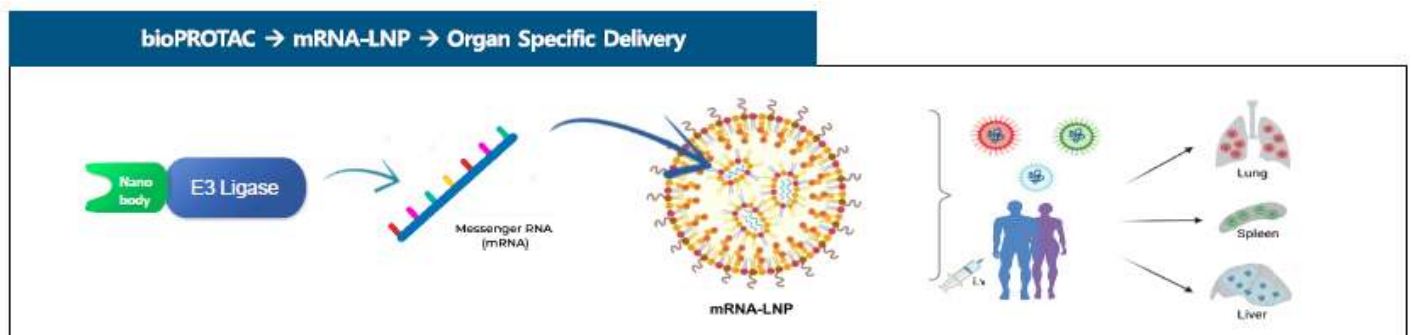
■ hyFc® 융합 단백질 플랫폼

동사는 인체 유래 IgD·IgG4 항체의 Fc 단편을 융합하여 단백질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hyF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다. FcRn(신생아 Fc 수용체)과의 결합을 통한 체내 약물 재활용 기전을 활용하여 기존 단백질 치료제 대비 지속성을 극대화하며, 인체 유래 성분으로 자가면역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는다. 이 플랫폼은 한국(KR 10-0897938 B1), 미국(US 7867491 B2, US 8586038 B2), 유럽(EP 2662449 B1) 등 다국가에 등록된 hyFc 물질 특허로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GX-E4, GX-H9, GX-G6, GX-I7 등 4개의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업 기여도가 검증되고 있다.

■ bioPROTAC EPDeg™ 플랫폼

동사는 2024년 10월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합병을 통해 내재화한 EPDeg™ bioPROTAC 플랫폼을 핵심 기술 자산으로 보유한다. 기존 저분자 PROTAC은 세포 내 단백질의 약 6.85%에만 결합 가능한 바인딩 포켓을 갖는 단백질만 분해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나, 동사의 bioPROTAC은 나노바디(nanobody)를 타겟 바인더로 활용하여 바인딩 포켓이 없는 undruggable 단백질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세포 내 단백질을 표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링커(linker) 설계 없이 나노바디와 엔지니어링 E3 리가아제를 직접 융합하는 구조로, 총 27종의 혁신 E3 단백질과 자체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표적 후보물질 발굴이 가능하다. GX-BP1(SOX2 bioPROTAC)은 폐암 이중이식 모델에서 강력한 in-vivo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GLP-독성 실험 완료 후 2027년 IND 신청을 위한 데이터 패키지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GX-BP2(STAT3 bioPROTAC)는 시판 PROTAC KT-333 대비 20~30배 강력한 STAT3/pSTAT3 분해 효능과 높은 선택성을 in-vitro에서 확인하였으며, 아토피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25mpk Dupixent® 대비 1mpk 투여 조건에서 우수한 in-vivo 효능을 입증하였다.

그림 6. bioPROTAC 플랫폼 기반 mRNA LNP로 장기 특이적 전달 방식



자료: 동사 IR 자료(2026)

제넥신(09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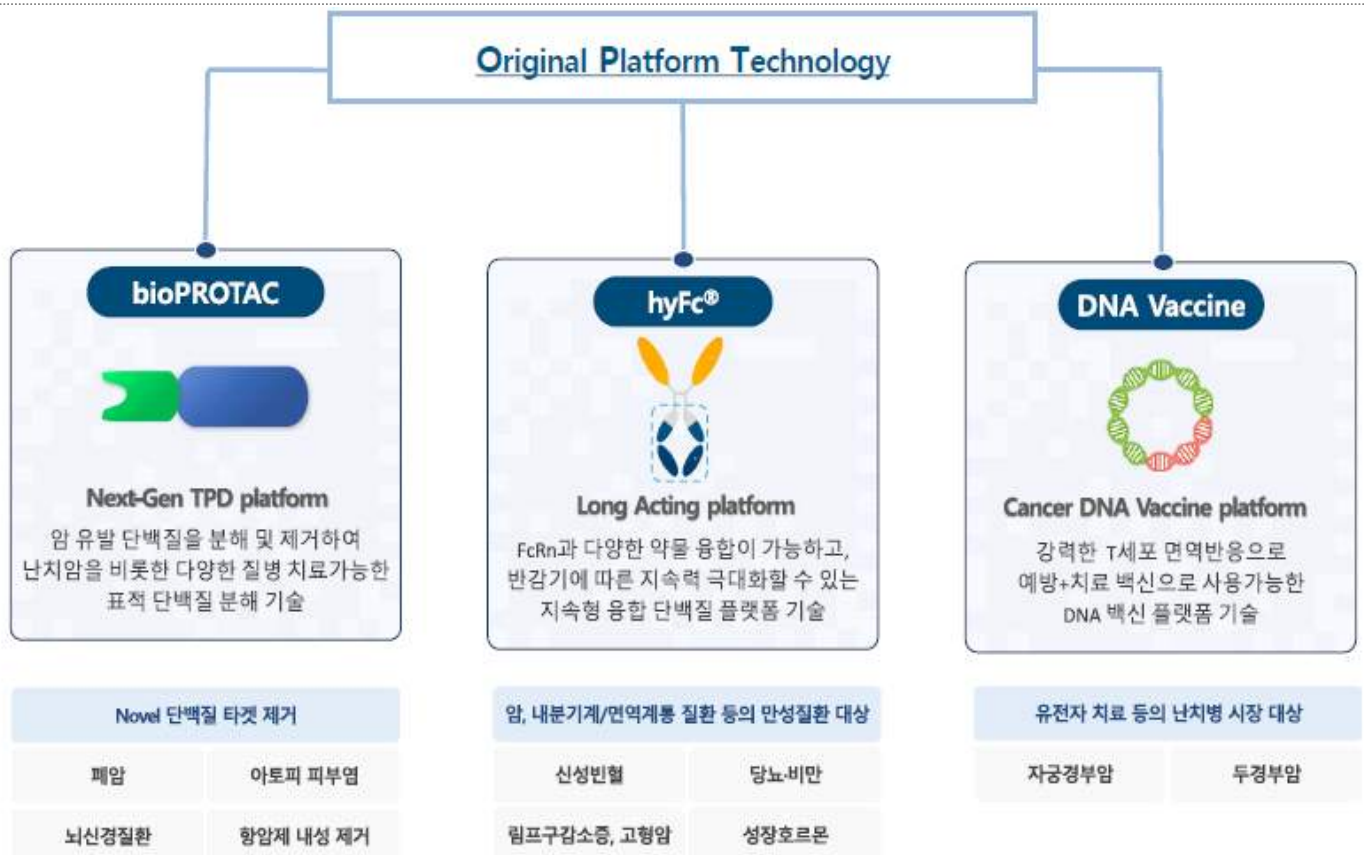
■ DNA 백신 플랫폼 및 임상 역량

동사는 전기천공법을 활용한 plasmid DNA 기반 백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HPV 16/18 E6·E7 항원특이적 T세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GX-188E(자궁경부전암·자궁경부암 치료 DNA 백신)의 한국·유럽 임상 2상 완료 경험을 통해 DNA 벡터 기술 기반 임상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와 같은 3대 플랫폼 기술과 25년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경험은 후보물질 발굴에서 임상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역량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연구개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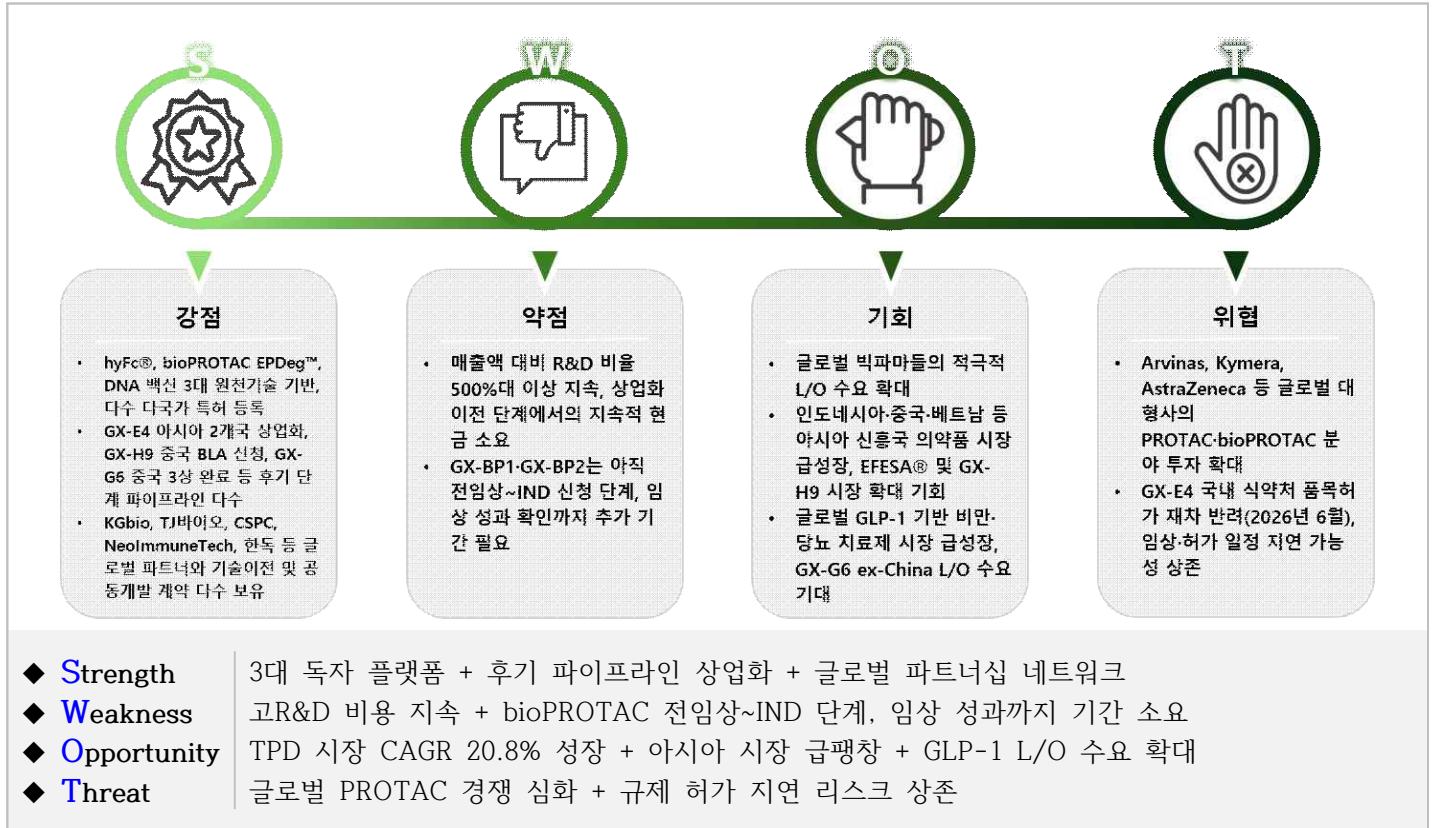
동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2023년(제25기) 263억 4,100만 원, 2024년(제26기) 220억 3,400만 원, 2025년(제27기) 270억 4,600만 원으로, 최근 3개년간 220억~270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023년 595%, 2024년 751%, 2025년 582%로, 연구개발 중심의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의 높은 R&D 투자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2023년 12월 GX-E4 비투석 환자 대상 임상 3상 결과 발표(미췌라 대비 비열등성 입증), 2026년 3분기 중 GX-H9 중국 BLA 신청 예정, 2024년 10월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 합병을 통한 EPDeg™ bioPROTAC 플랫폼 내재화, GX-BP1 전임상 데이터 패키지 구축 완료, GX-BP2 Dupixent® 대비 우수한 in-vivo 효능 확인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보조금 수혜 후 보조금 차감 실 집행 연구개발비는 2025년 266억 1,700만 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7.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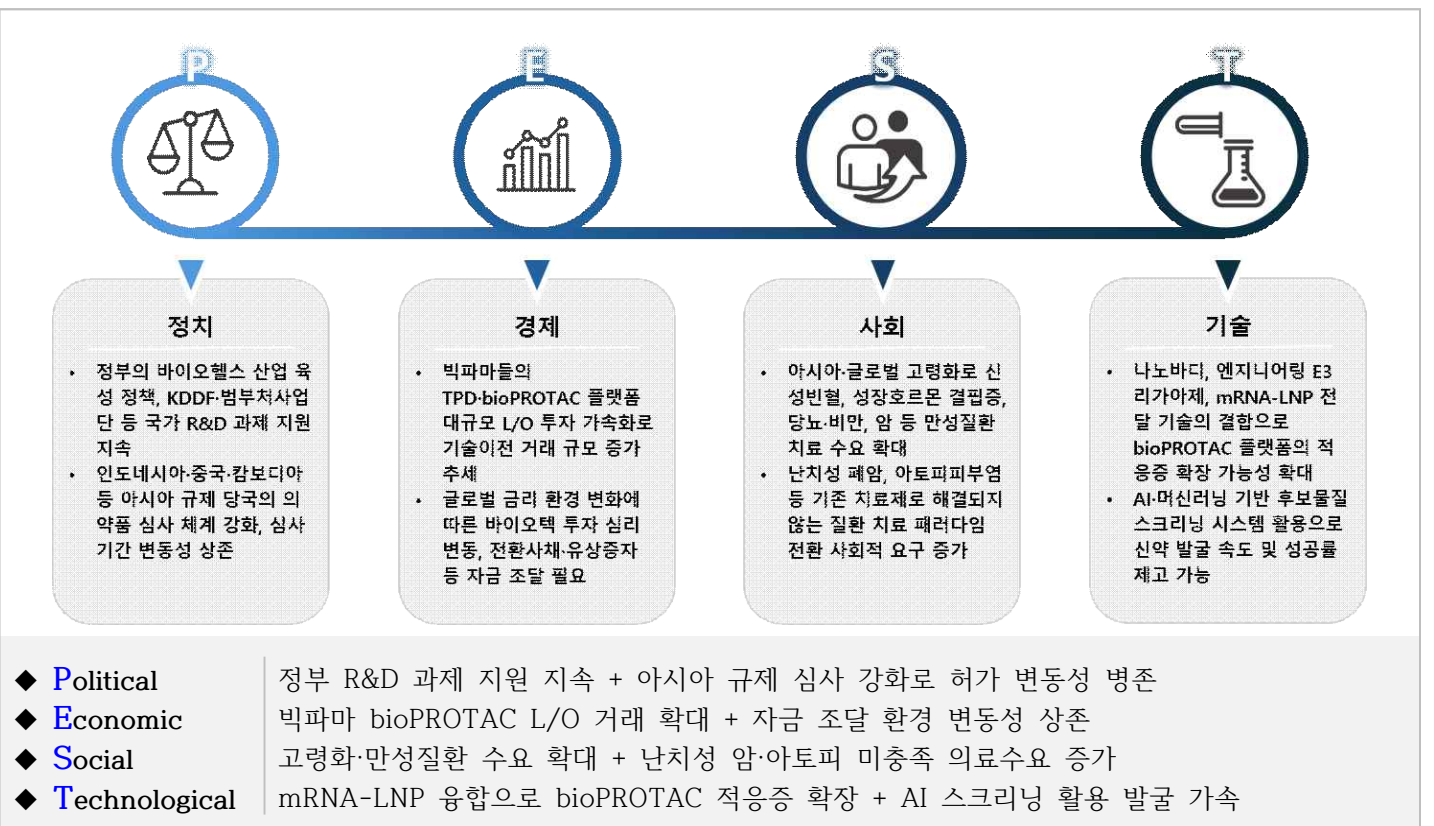


자료: 동사 IR 자료(2026)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기술이전 매출 중심 임상단계 바이오, 2025년 매출 45.7억 원·순손실 축소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기술이전 마일스톤 인식 확대로 전년 대비 56.0% 증가한 45.7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손실은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고강도 연구개발비 지출이 지속되며 361.7억 원을 나타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전년 637.1억 원에서 272.2억 원으로 축소되며 손익 개선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이전·로열티·용역으로 구성된 임상단계 매출 구조

동사는 연구개발용 200L Pilot 시설 등 전임상 시료·연구용 제품 생산 능력을 자체 보유한 임상단계 신약개발 기업으로, 매출은 파이프라인 기술이전 계약금·마일스톤, 기술재산권 로열티, 시료생산·위탁용역으로 구성된다.

2025년 매출 45.7억 원은 GX-I7 기술이전 약 27.8억 원, 동아ST FSH 로열티 1억 원, 시료생산·위탁용역 등 16.9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매출액은 2022년 158.9억 원에서 2023년 38.7억 원·2024년 29.3억 원으로 조정된 후 2025년 45.7억 원으로 반등하였다.

■ 연구개발비 지속에 따른 영업손실, 순손실은 축소 흐름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9.4억 원 감소한 29.3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손실은 32.4억 원 축소된 372.5억 원, 당기순손실은 평가·금융손실 인식으로 245.7억 원 증가한 637.1억 원을 나타내었다(매출액증가율 -24.2%, 영업이익률 -1,270.0%, 순이익률 -2,172.2%).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4억 원 증가한 45.7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손실은 10.8억 원 축소된 361.7억 원, 당기순손실은 364.9억 원 축소된 272.2억 원을 나타내었다(매출액증가율 56.0%, 영업이익률 -790.8%, 순이익률 -595.0%).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8% 성장한 4.1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손실은 90.0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손실은 12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흐름을 시현하였다.

영업손실은 2025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82%에 달하는 고강도 R&D 투자가 지속된 결과이며, 당기순손실은 2024년 637.1억 원에서 2025년 272.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규모 평가·금융손실의 기저효과 소멸과 함께 손익 관리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전환사채 조달 기반 유동성 확충, 자기자본비율 66.5% 유지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678.1억 원 감소한 3,450.4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9.1억 원 증가한 833.6억 원, 자본총계는 707.2억 원 감소한 2,616.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65.9%p 하락한 86.9%, 부채비율 7.7%p 상승한 31.9%, 자기자본비율 4.7%p 하락한 75.8%).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62.3억 원 증가한 3,712.7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411.5억 원 증가한 1,245.1억 원, 자본총계는 149.2억 원 감소한 2,467.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47.7%p 하락한 39.2%, 부채비율 18.6%p 상승한 50.5%, 자기자본비율 9.3%p 하락한 66.5%).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76.2억 원 증가한 3,551.7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307.9억 원 증가한 1,255.1억 원, 자본총계는 131.7억 원 감소한 2,296.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45.2%p 하락한 29.8%, 부채비율 15.7%p 상승한 54.7%, 자기자본비율 7.2%p 하락한 64.7%).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개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38.7	29.3	45.7	3.2	4.1
매출액증가율(%)	-75.6	-24.2	56.0	-84.6	29.8
영업이익	-404.9	-372.5	-361.7	-84.8	-90.0
영업이익률(%)	-1,046.0	-1,270.0	-790.8	-2,652.9	-2,170.0
순이익	-391.4	-637.1	-272.2	-189.2	-124.4
순이익률(%)	-1,011.1	-2,172.2	-595.0	-5,922.6	-3,000.5
부채총계	804.5	833.6	1,245.1	947.2	1,255.1
자본총계	3,324.0	2,616.8	2,467.6	2,428.3	2,296.6
총자산	4,128.5	3,450.4	3,712.7	3,375.5	3,551.7
유동비율(%)	152.8	86.9	39.2	75.0	29.8
부채비율(%)	24.2	31.9	50.5	39.0	54.7
자기자본비율(%)	80.5	75.8	66.5	71.9	64.7
영업현금흐름	-360.7	-215.0	-295.8	8.0	-30.7
투자현금흐름	-413.2	86.4	-67.2	-40.1	17.1
재무현금흐름	679.3	79.6	442.1	89.9	-40.6
기말 현금	27.0	11.6	91.5	69.5	38.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2024년 10월 (주)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를 소규모합병하여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 플랫폼 EPDeg™과 TPD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항체·유전자 원천기술에 표적단백질분해를 더한 3대 플랫폼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폐암·아토피 피부염 등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천기술의 확장은 개별 파이프라인 도입보다 후속 후보물질을 자체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 엔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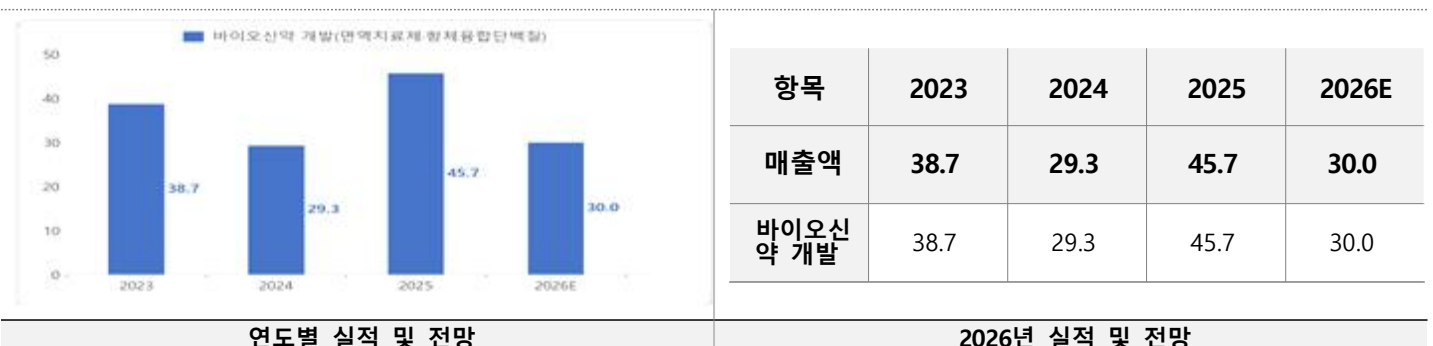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4는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승인, 2024년 1월 한국 품목허가 신청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GX-E4는 임상 3상에서 경쟁 약물인 Mircera 대비 헤모글로빈 반응률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세포독성이 없어 장기 투여 시 부작용 수준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특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면역항암제 GX-I7 또한 재발성 교모세포종에서 베바시주맙 병용 2상, 삼중음성유방암에서 pembrolizumab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동사에서 분사하여 창업한 미국 NeoImmuneTech의 주도로 급성방사선증후군 및 CAR-T 병용 대형 B세포 림프종(Large B-cell lymphoma) 적응증으로 개발 하는 등 파이프라인 진전이 확인된다. 아시아를 시작으로 호주·대만 등 다국가 허가·임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상업화 단계 파이프라인과 후기 임상 성과가 축적될수록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이전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매출은 파이프라인별 기술이전 계약과 마일스톤 인식 시점이 실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드라이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정된 성장 기반으로는 2024년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 합병을 통한 bioPROTAC(EPDeg™) 플랫폼 내재화가 자리하며, 진행 중인 동력으로는 GX-E4의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승인 및 한국 품목허가 재 신청 계획 및 GX-H9의 중국 임상 3상 및 중국 품목허가 신청 계획, GX-I7의 병용 임상 진전이 확인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9.20%·표적단백질분해 20%대의 고성장 환경에서, 3대 원천기술과 다국 특허를 결합한 자체 개발 역량이 후기 임상 진입과 글로벌 기술이전 협상력으로 전이될 경우 매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적으로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2025년 매출 대비 582%) 선행 투자 구조상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 기저효과와 손실 관리로 당기순손실은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전환사채 조달로 기말 정기예금 및 MMF를 포함한 가용 현금이 333억 원으로 확충되고 자기자본비율이 66.5%로 유지되어 다년 임상 자금 여력을 확보하였으나, 신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한 수익 실현 시점과 추가 자금 조달 역량이 중장기 재무 운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개별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bioPROTAC 글로벌 기술이전과 EFESA® 아시아 상업화로 도약 기대

동사는 bioPROTAC EPDeg™ 플랫폼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EFESA®(GX-E4)의 아시아 상업화 확대, GX-H9의 중국 시장 진입을 3대 핵심 성장 모멘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X-BP1·GX-BP2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학회 성과 발표를 통한 기술 가치 입증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bioPROTAC 기술력의 글로벌 인정과 L/O 협상 가시화

동사의 EPDeg™ bioPROTAC 플랫폼은 2026년 6월 KDDF(국가신약개발재단)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게재한 혁신 모달리티 특집기사에서 차세대 TPD 기술로 집중 조명되었으며, GX-BP1 연구성과는 AACR 2026 포스터 발표에 이어 2026년 9월 세계폐암학회(WCLC 2026)에서 구두 발표 주제로 선정되어 글로벌 R&D 커뮤니티에서의 기술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GX-BP1은 다케다(Takeda)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Cornell Univ., Emory Univ., Univ. of Chicago 등 글로벌 KOL과의 MTA 기반 공동연구를 통해 방광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으로의 적응증 확장 실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글로벌 학술·산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은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5년 7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mRNA 기반 치료제 서밋' 발표 이후 글로벌 빅파마 6곳 이상이 후속 논의를 요청하는 등 기술이전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후기 파이프라인 상업화 진전과 한국 시장 과제

동사의 대표 상용화 파이프라인인 EFESA®(GX-E4)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품목허가를 바탕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다국가 출시를 진행 중이나, 2026년 6월 식약처로부터 한국 품목허가 신청이 CMC·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자료 보완 사유로 재차 반려되어 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안전성·유효성과 무관한 행정·제조품질 보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재신청 시 반려 사유 보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허가 획득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GX-H9의 중국 CDE BLA 신청은 2026년 3분기 중 진행될 전망이며, 중국 파트너 TJ바이오와 점프젠 파마슈티칼을 통한 중국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GX-H9의 중국 시판이 개시될 경우 최대 4,000만 달러의 판매 마일스톤 수령이 가능하며,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남미 등 추가 지역에서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 bioPROTAC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완료 및 IND 신청 준비

동사의 GX-BP1(SOX2 bioPROTAC)은 전임상 단계에서 carboplatin/paclitaxel 병용 시 중앙성장억제율(TGI) 96%, EGFR 저해제 오시머티닙(타그리소®) + ADC Dato-DXd 3제 병용 시 6/6 완전 관해(CR) 달성 등 탁월한 항암 효능과 GLP-독성 시험 완료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세계 최초 bioPROTAC 후보물질로서 IND 제출을 목표로 글로벌 BD 컨설팅사 고용 등 기술이전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GX-BP2(STAT3 bioPROTAC)는 2026년 3분기 내 최적 LNP 제형 확보 및 2026년 4분기 전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공동 연구개발 협업 및 라이선싱 아웃 파트너십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현 대표이사는 GX-BP1의 성공적인 글로벌 L/O가 달성되면 GX-BP2, GX-BP3 등 제2·제3의 기술수출이 연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을 동사가 bioPROTAC 분야 글로벌 리더 입지를 굳히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넥신(09570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제넥신은 최근 AACR 2026에서 SOX2 표적 '바이오프로탁(bioPROTAC)'의 폐편평세포암 항암 효능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차세대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했고, 향후 신약 후보물질들의 글로벌 기술수출 파트너십 확대와 중국 내 허가 추진을 발판 삼아 장기적인 주가 반등 및 기업가치 회복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제넥신	X	X	X